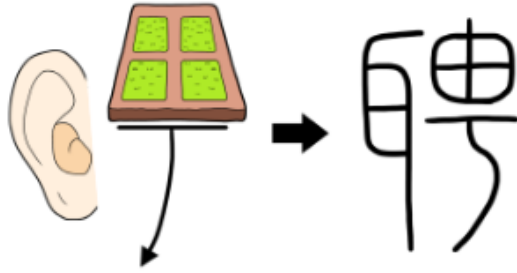


형성문자㉠



聘

부를 빙

聘자는 '찾아가다'나 '안부를 묻다',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聘자는 耳(귀 이)자와 甹(말이 쥔 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甹자는 '말이 재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병→빙'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聘자는 본래 '안부를 묻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였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들어야 하니 耳자가 의미요소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후에 '구하다'라는 뜻이 파생되면서 지금은 '부르다'나 '초빙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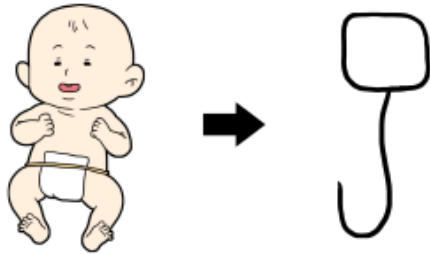
聘

소전

聘

해서

상형문자㉠



巳

뱀 사:

巳자는 '뱀'이나 '여섯째 지지(地支)'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巳자는 몸을 틀고 있는 모습이 마치 뱀과 같다고 하여 '뱀'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본래는 태아를 그린 것이다. 그래서 巳자와 己(이미 이)자의 기원은 같다. 다만 해서에서부터는 巳자가 뱀침이 반만 채워진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巳자는 뱀침을 채워 '뱀'이나 '여섯째 지지'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巳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胞(태보 포)자 처럼 여전히 '태아'와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巳

갑골문

巳

금문

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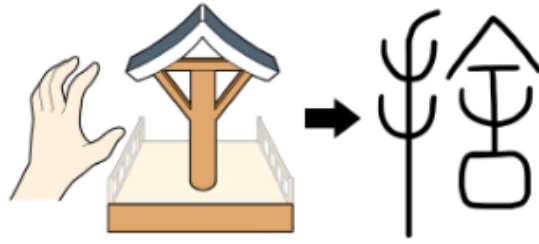
소전

巳

해서

3
-
123

회의문자①



捨

버릴 사:

捨자는 '버리다'나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捨자는 手(손 수)자와 舍(집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舍자는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간이 시설을 그린 것으로 '여관'이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舍자는 내가 잠시 쉬었다 떠나는 곳이기 때문에 소유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捨자는 이렇게 '일시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舍자에 手자를 더한 것으로 '버리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捨자는 불교가 중국에 유입된 이후부터는 '무소유'의 개념으로도 쓰이고 있다. 그래서 사가(捨家)라고 하면 집을 버리고 승려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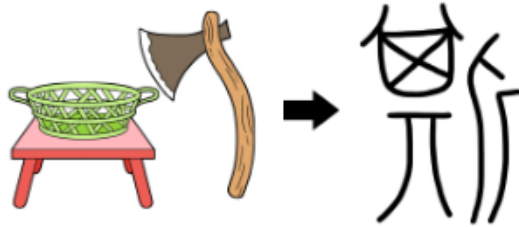
소전

捨

해서

3
-
124

회의문자①



斯

이 사

斯자는 '이'나 '이것'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斯자는 其(그 기)자와 斤(도끼 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其자는 대나무를 잘라 엮어 만든 바구니를 그린 것이다. 여기에 斤자가 더해진 斯자는 본래 대나무를 잘라 바구니를 만든다는 뜻을 표현했었다. 그러나 후에 '이것'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斯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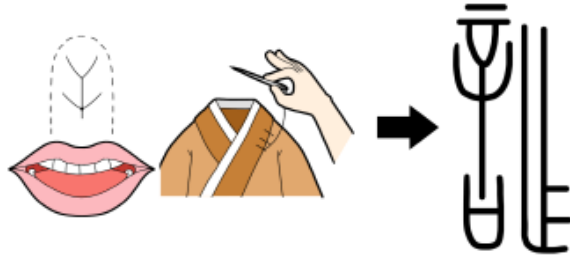
斯

소전

斯

해서

회의문자①



詐

속일 사

詐자는 '속이다'나 '가장하다', '(말을)꾸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詐자는 言(말씀 언)자와 乍(잠깐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乍자는 '잠깐'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옷을)짓다'가 본래의 의미였다. 이렇게 '짓다'라는 뜻을 가진 乍자에 言자가 결합한 詐자는 '말(言)을 짓다(乍)'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말을 짓다'라는 것은 '말을 지어내다'라는 뜻이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말을 지어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로 '사기'와 관련된 뜻으로 쓰인다.

詐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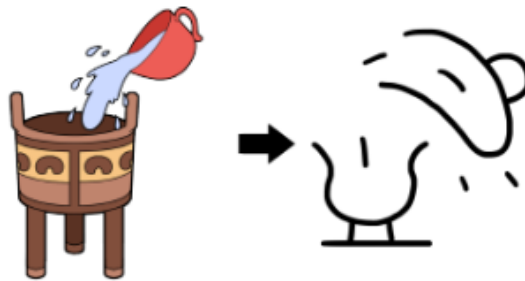
詐

소전

詐

해서

회의문자①



賜

줄 사:

賜자는 '주다'나 '하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賜자는 貝(조개 패)자와 賜(바꿀 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賜자는 그릇에 담긴 것을 내다 버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쉽다'나 '바꾸다'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賜자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貝자가 아닌 鼎(술 정)자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갑골문에서의 賜자는 그릇에 있는 것을 술에 담아주는 모습이었다. 이것은 남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鼎자가 貝자로 바뀌게 되면서 '(재물을)주다'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賜

갑골문

賜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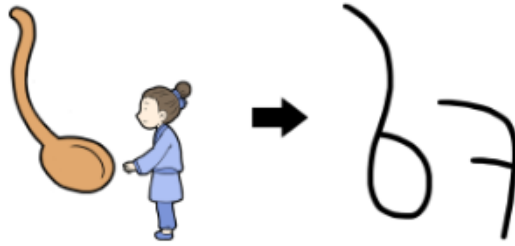
賜

소전

賜

해서

형성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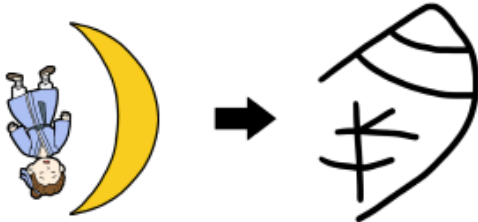
似

닮을 사:

似자는 '같다'나 '닮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似자는 人(사람 인)자와 以(씨 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以자는 본래 수저와 같은 모습을 그렸던 것으로 '~에 따라'나 '~때문에'라는 뜻이 있다. 以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다. 그러다 보니 似자의 해석도 그리 명확하지는 않다. 似자의 금문을 보면 수저와 갈퀴가 ㄱ 함께 그려져 있었는데, 소전에서는 갈퀴가 人자로 바뀌게 되었다. 아직 명확한 뜻풀이는 없지만 '닮다'나 '비슷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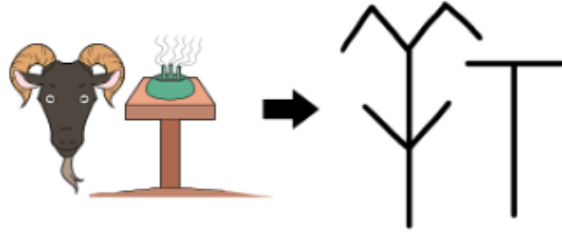
朔

초하루
삭

朔자는 '초하루'를 뜻하는 글자이다. 朔자는 𠂔(거스를 역)자와 月(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사람을 뒤집어 그린 것으로 '거스르다'라는 뜻이 있다. '초하루'는 음력 1월 1일을 말한다. 이때는 사라졌던 달이 다시 밝게 나타나는 때이기도 하다. 달은 보름달이 되었다가도 그믐달로 사라져 다시 초승달로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니 朔자에 쓰인 𠂔자는 달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祥

상서 상

祥자는 '상서롭다'나 '조짐', '자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祥자는 示(보일 시)자와 羊(양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고대에는 '양'이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쓰였다. 그래서 희생양(犧牲 羊)이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했다. 그러니 羊자에 제단을 그린 示자가 결합한 祥자는 신에게 양을 바쳐 제사 지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祥자가 '상서롭다'나 '복'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도 제사를 통해 좋은 일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그러니 祥자에 '조짐'이나 '자세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신이 기원에 응해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𠄎

갑골문

𠄎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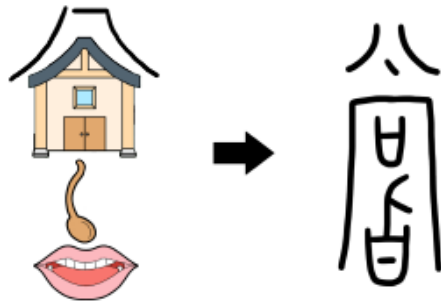
祥

소전

祥

해서

회의문자①



嘗

맛볼 상

嘗자는 '맛보다'나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嘗자는 尙(오히려 상)자와 旨(맛있을 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尙자는 집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그린 旨자가 결합한 嘗자는 집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嘗자는 음식을 '맛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𠄎

금문

𠄎

소전

嘗

해서